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 12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 특성화로 산업 체질 개선을”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 관련기사4면

“지역경제 침체, 주력 제조업 위기에 따른 것
전북, 주력산업 중심 다양한 산업 연계성 높여야”

산업분야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도가 자동차부품과 농생명 등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력이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를 통해 제시됐다.
이는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에서 강조했다.
특별세션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와 대기업 철수 등 지역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활로를 찾는 현실감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원 김운수 박사가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김 박사는 지역경제 침체는 조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의 위기에 따른 것으로 국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산업 발전 여건을 고려해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의 효율적 추진을 주장했다.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전북도의 경우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탄소복합소재, 지능형 기계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지역산업위기의 배경과 군산지역사회의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조업의 패러다임변화와 4차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등 지역산업위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혁신과 창업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혁신과 창업의 장소로 불리는 중관촌과 스웨덴 말뫼시의 성공사례를 들려 지역사회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전국 52개 학회 등 80개 관련기관이 주최해 열렸으며 13일까지 전북도에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운동하기 쉬운 전북’ 조성

전북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중점 계획
체육 인프라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동호인 활동 지원 등 3가지 계획 담아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올해도 '스포츠의 생활화, 일상의 스포츠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하기 쉬운 전북도'를 만들고, 도민 누구나 스포츠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스포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12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체육의 중점 계획을 보면 ▲체육 인프라 조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동호인 활동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도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체육 시설 개방 지원과 신나는 주말 체육 학교를 올해에도 운영한다.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은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단순히 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리매니저를 배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지난해에는 도내 8개 시군 17개 학교가 참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말 체육학교를 통해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에 대한 학생들의 스포츠·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데 앞장선다.
도내 14개 시·군에 지도자(일반지도자·어르신지도자·전문체육강사·광장지도자 등)를 배치해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상설광장을 운영한다.
더 많은 체육 서비스를 위해 지난 해보다 10여명 증원시켰고 이에 생활체육지도자(159명), 광장 지도자(141명) 등 약 300명의 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도 더욱 활성화된다.
도내에는 현재 전북·익산·군

산·완주·남원거점·전주비전·무주태권도원·고창생물권 등 8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생애주기별 각종 체육활동도 이뤄지는 데 주요 사업들을 보면 유아체육활동 지원·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유소년 FC 운영·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청소년클럽대회 향무예대회·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등이다.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동호인 주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생활체육대회도 풍성하게 열린다.
오는 4월에는 고창에서는 제56회 전북도민체전이 펼쳐지고 5월에는 정읍시 일원에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 9월에는 전북제조경연대회가 임실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월에는 도내 14개 시군 여성동호인이 출전하는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예정 돼 있고, 도내 최고 클럽팀을 가리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11월에 펼쳐지게 된다.
아울러 종목별 도시사기(배)대회는 연중 열리고,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도 참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활체육안전교실 등 소외계층·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여성들의 특성(직장·출산전후·육아기·경년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는 데 인권향상 교육을 강화해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묵 또는 저역시간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상설광장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체육계에서 논란이 됐던 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인 권리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삶의 활력을 주는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체육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초중등 사학정책,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일 토론회서
 사학 정책 공공성 강화 등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초중등 사학정책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고, 향후 법률 개정을 꾀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10

재정·법인·인사 정책
 나뉘어 전문가 토론토

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회에서 의결한 유초중등 사학과 관련한 정책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토론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의 불날과 사립학교'라는 제목으로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초발제를 한다.
지정토론토도 진행된다.
재정과 법인, 인사 정책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이 토론토한다.
재정 정책분야에는 조훈 서정대 교수와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토하고, 법인 정책분야에는 이명용 변호사와 김영태 CBS 기자가 토론토한다.
인사 정책을 놓고서는 홍택정 한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복회장과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명품한옥호텔 | 남원에초노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2018 전북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
2018 한국일보 주최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호텔 서비스 분야)